

‘자동차 100만대 도시’ 노력... 정부 예타 조사·예산반영 끌어내

<예비타당성>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은 민선 6기 광주시의 절대명제이다. 지역발전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분야이다. 지역 경제의 발전은 물론 고질적인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필수 과제인 것이다.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민선 6기 1년 광주시의 행보를 돌아본다.

자동차 산업

민선 6기 광주시가 내세운 핵심 사업은 단연 ‘자동차산업벨리 조성사업’이다. 운장현 시장의 공약인 이 사업은 ‘안정적 일자리 확보’라는 대명제와 맞닿아 있다.

이 사업을 위해 광주시는 지난 1년을 쉬지 않고 달려왔다. 그 결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돼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사업은 친환경자동차 전용 산업단지 조성, 기업 공동활용 인프라 구축, 친환경자동차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이 핵심 내용이다.

시는 자동차산업벨리 조성을 통해 제조업 발전과 미래 먹거리산업 창출에 이바지하고, 성공적 일자리 모델 구축으로 국가 제조업 르네상스를 이끈다는 원대한 포부를 갖고 있다.

지난 1월 개소한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센터 현대차와 손잡고

수소차 허브도시 조성 추진

타’도 현대차와 공동으로 자동차분야 창업 지원, 수소연료전지차 기술혁신 지원 등을 추진하며 광주의 자동차 산업을 힘 보태고 있다. 시는 수소관련 정책개발, 기술개발과제 발굴, 인력양성 등과 혁신센터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수소자동차 허브도시 추진위원회’를 가동해 지원하고 있다.

클린디젤자동차 핵심부품산업 육성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1871억원을 투입해 진곡산단에 디젤기술전문센터와 첨단단지에 핵심부품소재 센터를 건설하는 사업이 올 6월 준공돼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의 기술 고도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더불어 광주시는 자동차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 최초로 지원 조례도 제정·공포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지난 19일 광주시 광산구 진곡산단 내 클린디젤 기반시설 준공식에 참석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1만1984㎡ 규모의 클린디젤 기반 시설에는 광주구린카진흥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을 비롯한 일반 기업체들이 입주해 친환경자동차 기술개발에 협력한다. <광주시 제공>

한전 ‘에너지밸리’ 맞춤형 사업 시작... 기술개발·기업지원도 속도

에너지 산업

한전의 빛가람혁신도시 입주하는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 산업을 고민하던 광주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주었다.

한전과 한전KDN, 한전KPS, 전력거래소는 지난 1월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에너지밸리 조성사업’ 추진을 대내외에 알렸다. ▲광주·전남에 매년 100억원 이상 R&D 지원 ▲2020년까지 기업 500개

유치 ▲전문인력 1000명 양성을 목표로 하는 에너지밸리사업은 광주와 전남 에너지산업 육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민선 6기 광주시는 에너지 분야의 환경적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는 것으로 에너지밸리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먼저 시 기구를 에너지밸리 조성에 최적화된 조직으로 개편했다. 혁신도시추진기획단을 기획조정실 산하에 신설했다. 에너지

산업과를 만들고 에너지밸리팀과 신재생에너지팀, 에너지관리팀을 배치해 관련 기능을 통합했다. 에너지밸리팀은 한전의 에너지밸리사업과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는 등 발빠른 대응과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다. 또 시는 한전, 광주과기원과 함께 지난 5월29일 에너지밸리기술원 설립·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GIST 내에 기술원을 개소했다. 광기술원과 생산기술연구원·전자통신연구원·전자부품연구원 등

R&D특구 내에 4개의 에너지 전문연구기관을 갖춘 광주시는 2016년 에너지기술연구원과 2017년 전기연구원 분소가 문을 열게 되면 에너지기술개발과 기업지원을 위한 강력한 추진동력을 확보한 셈이다.

시는 한전과 함께 이미 에너지 기술개발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시작했다. 지난 해 8월부터 ‘성장거점 연계 지역산업 육성사업’에 2017년까지 3년간 9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한다.

권위적 의견 없애고 낮은 곳부터 챙겨 잘못된 행정도 시민에 먼저 알려 개선

소통·공감 행정 눈길

“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기동물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올해엔 방사장을 꼭 넓혀겠습니다.”, “늑대야 미안해. 편안한 집 곧 만들어 줄게.”

광주시 산하 우치동물원 사무소가 동물원 곳곳에 내걸고 있는 이른바 ‘고백 현수막’이다. 조성된 지 20년이 넘도록 비좁고 낡은 감옥 형태의 동물우리 등 환경을 개선하지 못한 점에 대한 반성이다.

우치공원 관계자는 “민선 6기들어 150억원을 들여 기존 쇠창살과 콘크리트 바닥으로 지어진 비좁고 낡은 감옥 형태의 우리를 각 동물의 생태적 특성에 맞는 동물친화적인 공간으로 바꾸기로 했다”면서 “다만 그동안 예산 등을 이유로 고쳐주지 못한 동물 우리와 이를 지켜본 시민들에게 반성한다는 고백과 함께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현수막을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민활동가 출신인 윤장현 광주시장의 권위를 내려놓는 고백·감성 행정이 폐쇄적이고 딱딱했던 공직사회에도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기존 공직사회 분위기가 허물어 일단 감추고, 성과는 부풀리는 게 일반적이었던 민, 민선 6기에는 잘못된 행정은 시민에게

먼저 알리고 개선해 나가자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는 윤 시장의 스스로 권위 내려놓기와 조직 내 잘못을 시민에게 먼저 알리는 이른바 고백 행정의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윤 시장은 실제 취임과 동시에 각종 권위적 의견 관행부터 없앴다.

윤 시장은 대신 시정 주관 행사 때 시민 등 참석자들의 의견을 소홀히 할 경우에는 호되게 질책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윤 시장은 또 자신의 가장 막강한 권한인 직원 인사 때는 간부급 직원을 모두 직접 면접하고 그들의 고충과 희망 부서, 적성부서 등을 꼼꼼히 따지는 맞춤형 인사를 해 시민 시정다운 인사방식이라는 평가도 받았다.

권위를 내려놓다 보니 낮은 곳부터 살피게 되는 것도 윤 시장의 행정 특징 중 하나다.

윤 시장은 취임 후 관바로 시청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이끌어 냈다. 이는 산하 기관으로도 확대돼 김대중컨벤션센터가 7월 1일자로 용역노동자 73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또 도시철도공사도 8월 30일자로 용역기간이 만료되는 청소·시설 노동자, 역무원 등 287명(조정 가능)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지역 전반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박진표기자 lucky@

문화전당 완공·KTX 개통... 문화·관광사업 시너지 효과 키우기

문화 산업

지난 1년 동안 시는 문화·예술·관광산업 진흥과 관련 산업의 기초와 틀을 닦는데 주력했다.

아시아문화의 허브이자 문화 예술 콘텐츠를 생산·소통하는 복합문화시설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지난해 10월 완공됐다. 연면적 16만1237㎡로 단일 문화시설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중국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접근해 지역발전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중

국과 친해지기 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당장 기틀을 마련하고 친중국 우호환경을 조성했으며, 한중문화교류의 중심거점이 될 ‘중국과 친해지기 지원센터’를 설립했다.

아시아문화예술활성화 거점 프로그램인 대인예술 야시장, 예술의 거리 조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문화전당 주변을 활력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했고, 사직공원 일대 통기타 음악의 거리를 문화관광 콘텐츠로 특화하기 위해 광주시직국제프크 음악제를 개최했다.

더불어 비엔날레전시관 및 주변 지역을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비엔날레상징 국제 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문화예술분야에선 지난해 12월1일 세계 4번째, 국내도시로는 최초로 광주가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선정돼 미디어아트 국제도시라는 공신력을 얻게 됐다.

문화산업분야에서는 문화콘텐츠산업을 지역발전의 핵심으로 정하고,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사업의 5대 전략콘텐츠(첨단영상·게임·애니메이션·공예·디자인·에듀테인먼트) 육성과 문화산업 기업의 지

역유지 및 고용창출을 위해 우수한 문화콘텐츠 상품의 창작·기획부터 제작·마케팅까지 다양한 지원시책을 펼치고 있다.

관광분야는 KTX 개통, 하계U대회 개최, 문화전당 개관, 혁신도시 입주 등 메가이벤트가 집중된 2015년을 남도 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호남관광관광진흥 협의회’를 구성했다. 관광 인프라 구축과 국제행사 유치 및 문화전당 개관으로 급증하는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해 신세계백화점과 지역 최대규모 특급호텔 투자유치 관련 MOU를 체결했다. /채희종기자 chaeh@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뉴스저작권보호공모전 우수상 수상작(최익환)

WON없이 쓰셨나요?

뉴스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창작물입니다.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에 위반되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뉴스 저작권 침해 사례

- 뉴스를 무단으로 스크랩·복제하여 내부 게시판에 올려 공유하는 경우
- 뉴스를 무단으로 스크랩·복제하여 e-mail 등을 통해 전송, 배포하는 경우
- 뉴스를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에 무단 게재하는 경우
- 뉴스를 저작권자 허락 없이 기관 홍보물에 복제하여 배포하는 경우